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3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50명 가족들 함께 손 잡고 새봄을 향한 ‘희망’의 질주

■ 여수 삼해원

“도전정신으로 꿈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여수시 연동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삼해원 학생들이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희망의 질주를 펼친다.

삼해원은 지난 1963년 설립된 아동복지 시설로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대학생까지 70명의 학생들이 역경을 딛고 자신의 꿈을 그리는 희망의 터전이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삼해원 식구가 됐지만 학생들은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생활을 하고 있다.

삼해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의식과 자립심을 심어 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삼해원 밴드부 ‘소리나라’가 창단돼 학생들은 음악을 통한 배움의 즐거움을 얻고 있다. 3·1절 마라톤 대회도 이들에게는 희망을 펼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의 하나다.

2005년 3·1절 마라톤 대회와 인연을 맺은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희망의 질주를 다짐하고 있다.

아이들을 인솔해 광주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는 김미애 선생님은 “지난해 경기장에 마련된 간식 코너에서 음식도 먹고 경기가 끝나고 광주 나들이도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올해도 함께 뛰고 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즐거운 추억과 함께 성취감, 자신감을 얻은 이들은 올 시즌에는 ‘함께’를 목표로 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각종 단체에서 현수막을 들고 나와 함께 뛰는 것을 보고 조직의 단합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번 대회에는 고학년 이상의 삼해원 가족이 총출동한다.

인솔 교사 포함 대회에 출전하는 50명의 삼해원 식구들은 함께 호흡을 맞춰 결승선을 향해 달릴 예정이다.



여수 아동복지시설 삼해원 학생들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질주를 통해 새 학기의 힘찬 출발을 다짐한다.

윤명숙 원장은 “이번 마라톤대회 참가는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의미도 크다. 학생들이 새 학기 새 마음으로 학업에 열심히 하

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교사들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특히 아가방 등적(15

개월)이 재할치료를 열심히 받아 올해는 꼭 기어다닐 수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하며 달리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좌완의 희망 심동섭

“삼성 이승엽·채태인 등 대스타와 대결 기대려요”

“채태인 선배님 다시 한번 만나시죠!”

KIA 타이거즈의 겁없는 좌완 심동섭이 업 그레이드된 2012년을 꿈꾸고 있다. 심동섭은 지난 시즌 2.77의 방어율로 3승1패 2세이브 7홀드를 기록하면서 KIA 마운드 스타로 떠올랐다.

특유의 포크볼과 함께 직구 스피드가 늘어나면서 위력이 더해졌다. 무엇보다 배짱 있는 투구로 타자들을 압도했다.

심동섭은 “몸이 아팠을 때는 1군에 가서 가운데 던지면 다 맞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실제로 던지다 보니까 가운데로 공이 간다고 해서 꼭 맞는 것도 아니고, 나에 불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배짱투로 KIA 마운드 필승조에 이름을 올리면서 올 시즌 연봉도 2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심동섭은 “솔직히 이 정도의 인상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금액을 듣고 바로 계약을 했다”고 웃으며 “많이 받은 만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다. 하던 대로 하자는 생각이다. 마음가짐은 지난해와 똑같다”고 말했다.

2011년은 야구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과 또 가장 큰 아쉬움이 교차하는 해로 남아 있다.

심동섭은 “LG와의 경기에서 4이닝을 던졌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야구를 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받아 본 적도 처음이고 그

렇게 칭찬을 받아 본 적도 없었다. 또 그렇게 공을 던져본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심동섭은 4이닝 퍼펙트의 투구로 7개의 탈삼진을 찍었다.

2011 가을잔치는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었다. 심동섭은 “시즌 마지막에 밸런스가 흐트러졌다. 밸런스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안 좋다고 얘기들을 하니가 부담이 됐다”며 “준플레이오프 때 내가 거기서만 잘 던졌어도, 조금이라도 내 역할을 했더라도 괜찮았을 건데, 마지막에 내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아쉬움을 털고 2012년을 준비하고 있는 심동섭의 가장 큰 목표는 아프지 않는 것이다. 일단 첫해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재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만큼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내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10홀드 도전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심동섭은 “지난해 10홀드를 목표로 잡았다.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웠다. 올해도 역시 10홀드를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좌완이 귀한 KIA에서 양현종까지 여객 통증으로 시즌초 출발이 어려울 만큼 심동섭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삼성의 좌타자 거포 군단은 특히 심동섭이 반드시 막아야 하고 또 상대해보고 싶은 대상이다.

심동섭은 “1군에 있다면 홈 개막전에서부터 삼성을 만나야 한다. 이승엽이라는 대스타와의 상대가 재미있을 것 같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겠다”며 “특히 채태인 선배는 꼭 잡고 싶다. 프로에 와서 첫 홈런을 채태인 선배에게 맞았다. 다음 승부에서는 내가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 시즌 목표는 무조건 10홀드”

최희섭 완도 2군 캠프 합류

선동열 감독 지시... KIA 1군은 오키나와 캠프로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캠프로 이동해 베스트 멤버를 구성한다.

지난달 15일 미국 애리조나에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구슬땀을 흘렸던 KIA 선수단이 1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17일과 20일 2개조로 나누어 미국에서 귀국하는 선수단은 국내에서 하루를 보낸 뒤 각각 18일과 21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한다.

선동열 감독을 필두로 안치홍·나지완·김진우·앤서니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먼저 일본으로 건너가 시차 적응을 마친 뒤 22일 주니치와의 연습경기를 치른다.

윤석민·한기주 등은 후발대로 21일 오키나와에 합류해 출격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오키나와 스프링캠프는 코칭스태프 12명, 투수 19명, 포수 4명, 야수 1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키나와 기초구장에 캠프를 차리는 KIA는 22일부터 한국 및 일본 프로팀과 총 12차례의 연습경기 등을 갖고 실전 감각을 배양한 후 내달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훈련중인 최희섭은 16일 완도 캠프에 합류해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뒀다. 최희섭은 이날 오전 선동열 감독으로부터 “2군 캠프에 합류해 훈련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곧바로 잔류군 캠프가 마련된 완도로 향했다.

선 감독의 마음이 열리면서 최희섭의 오키나와 캠프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선 감독은 ‘잠적 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희섭에게 재할근 훈련을 지시했었다. 지난달 18일부터 재활관에서 몸을 만들 어왔던 최희섭은 기술훈련 참가를 허락받으면서 본격적인 2012시즌 준비에 나서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서 야구기록강습회

3월 17~18일 조선이공대

광주에서 야구기록강습회가 열린다. 한국야구기록연구회(SKBR)와 광주시야구협회(GBA)가 주최하는 제1기 기록강습회가 내달 17~18일 조선이공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지역에서 야구기록강습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조선이공대학, 효자병원이 후원한다.

교육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SKBR 관계자 등이 강사로 나서 야구경기의 역사와 규칙, 규약 및 기록법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실제 기록을 하고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cafe.daum.net/yonara)를 참고하거나 메일(yonara77@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넨, 허부언더코팅, 만도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빔더,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루마스타급(ATR) 50% 특별할인 행사
▶전면 179,000원 ⇒ 85,000원
▶후측면 239,000원 ⇒ 145,000원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펑크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역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소형 25만원 ⇒ 13만원 ▶RV 35만원 ⇒ 23만원
▶중형 30만원 ⇒ 18만원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대형 35만원 ⇒ 23만원